

“아시아 아픔 위로…안식을 주소서”

미디어 콜라주 아트 시리즈 ‘Requiem aeternam dona eis’
광주 영화인 영상 예술팀 ‘팀 히치콕’, 디스플레이 기업과 협업
9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10~11월 ACC 미디어월 등서 전시

‘아시아의 아픔을 위로하는 미디어 아트와 IT의 만남’

지난 3월 3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 중 군경의 총탄에 19세 소녀가 사망했다. 미얀마의 태권도 챔피언이자 춤, 매운음식, 붉은 립스틱을 사랑했던 소녀 치알 신(Kyal Sin)은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Everything will be OK’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쿠데타 발생 이래 가장 많은 38명의 희생자들과 함께 돌아오지 못할 길로 떠났다.

아시아의 아픈 역사를 시민들과 함께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광주의 영화인들과 기업이 만나 미디어 아트 작품을 제작해 눈길을 끈다.

광주를 기반으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명상 감독, 박서영 음악감독, 김신혜 프로듀서 그리고 제 39회 청룡영화제 단편영화상을 수상한 허지은·이경호 감독 등은 지난 5월 청년 영상 예술팀 ‘팀 히치콕’을 결성했다.

이들은 IT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AI인공지능 프로그램개발, LED투명디스플레이 등을 구축한 최첨단 투명 디스플레이 기업 TDL과 손잡고 미디어 아트 시리즈를 제작했다.

작품 제목은 미디어 콜라주 아트 시리즈 ‘Requiem aeternam dona eis(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팀 히치콕과 TDL은 예술인과 기업을 매칭해 예술인의 가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예술직무 영역을 제공하기 위해 광주문화재단이 마련한 ‘광주예술로’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5월 처음 만났다. 이후 한달에 한번 기획회의를 하면서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추모하기 위한 작품을 기획·제작에 나섰다.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기획한 박서영 음악감독은 “처음엔 지역민들을 위한 클래식 공연을 할까 했다”며 “그러다가 TDL의 투명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하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할까 고민하던 중 초단편영화를 만들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유명상 감독의 제안으로 미얀마 사태에 눈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최근 5·18 재단과 함께 작업한 유 감독이 미얀마의 치알 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5·18이 떠올랐어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시민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게 됐고 희생자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팀 히치콕과 TDL은 이번 미디어 아트 작품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 제주 4·3 사건, 중국 천안문 6·4 항쟁, 홍콩민주화운동 등 아시아 곳곳에서 벌어진 국가 공권력 남용과 그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오랫동안 기억해 불행한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민, 관객들에 메시지를 던진다.

작품은 오는 9월 1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개막하는 제 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5전시실 지역산업관 : d-Revolution for Gwangju (디자인을 통한 광주의 혁명)에서 만날 수 있으며 10월과 11월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네마랜드-미디어 월을 통해서도 전시된다.

문의 010-6554-6259.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팀 히치콕은 기업 TDL과 ‘Requiem aeternam dona eis’를 제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선보인다.

“난민·소외이웃 위한 정결한 기도서”

광양 출신 박연수 첫 시집 ‘더 이상 부르지 않은 이름’ 발간

이력이 특이한 문인의 경우 작품 세계 또한 범상치 않다. 범박하게 말한다면 결국 모든 작가는 살아온 만큼 글을 쓰게 되기 때문이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작품의 토대가 된다는 의미다.

광양 출신 박연수 시인은 이색적인 이력의 작가다.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원에서 선교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타직신학대, 유수프신학교 등에서 강의했으며 타지키스탄 선교사로도 활동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의 난민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이슬람 전문가이다.

그런 이력 때문일까. 박연수 시인의 첫 시집 ‘더 이상 부르지 않은 이름’ (문학들)은 더욱더 눈길을 끈다.

이승하 시인은 “지난 100년 동안 발간된 어떤 시집과도 변별되는 색채의 시집”, 이영광 시인은 “정결하고도 뜨거운 기도서 같다”고 상찬했다.

이러한 평은 결국 시인의 삶이 시속에 온전히 투영돼 있다는 의미를 전제로 한다. 오늘날의 시대 척박하고 위험한 땅에서 난민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시인의 작품은 한편 한편 기도 같기도 하고, 모든 삶을 응축한 고백 같기도 하다.



“자주 부르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을 때// 언어가 잘렸다/ 잃어버린 언어에 잃어버린 세계가 있었다// 잘린 문장 하나가 내 삶을 잘랐네”

표제시 ‘더 이상 부르지 않은 이름’은 심오하고 사색적이다.

작품은 이전에는 자주 불렀지만 언젠가부터 부르지 않아 일어난 상황을 그리고 있다. 그 언어가 잘리는 순간, 언어가 함의하는 세계도 그 이상의 것도 함께 상실된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

이국의 땅에서 만난 난민들은 단순한 만남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을 이해하고 한 몸이 되고자 하는 시인의 진실한 비망록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다음의 작품은 간절한 기도로 수렴된다.

“내가 네 통곡을 울기까지/ 네 소외를 살기까지/ 사랑이 아니었다// 언어는 몸 밖으로 나온 물들// 영혼의 몸”(‘눈물 110도’ 중에서)

한편 박 시인은 1994년 MBC 창작동화, 2019년 ‘미래시학’으로 등단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극단 도채비 ‘암행어사’ 공연.

<전남문화재단 제공>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발간



국립중앙도서관은 ‘뉴미디어 시대의 시청각 자료 디지털 보존 전략’을 다룬 자료집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사진〉제5호를 30일 발간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LP 음반부터 디지털 파일까지 시청각 자료 약 84만 점을 소장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재생 장비 단종과 매체 노화로 소실 위기에 처했다.

이슈페이퍼는 시청각 자료 디지털화, 데이터 자동 추출 과정과 장기 보존 전략 방안을 논했다.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는 도서관 주요 업무와 정책을 소개하는 부정기 간행물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nl.go.kr)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전남문화재단, 유아 문화예술 교육 제공

전남문화재단은 저출산 시대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확대와 환경 여건 마련을 위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전남 영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는 담양 공예미술관 보임센 등 4개소이며, 미술, 연극, 음악, 소리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과거 교과중심에서 유아·놀이중심을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체험형(유아가 문화시설을 공간을 체험해보는 수업)과 방문형(강사가 영유아 교육기관에 방문하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애 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유아에게 공간적 체험과 특색있는 콘텐츠를 흥미롭게 제공한다.

또한 재단은 문화예술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도 고금도, 청산도 등 문화소외지역을



전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습.

직접 방문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특성 자원인 ‘해랑지유’ 슬로건에 맞춰 해양 쓰레기를 재료로 활용하는 다양한 창작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 민속 악극마당 ‘대한민국 창극제’

9월3일~10월16일, 나주·무안·곡성·강진 등서 온라인 생중계

창(唱)과 대사, 음악, 춤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민속 악극 창극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진다.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이 준비한 2021 대한민국 창극제가 9월 3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2개월 동안 나주문화예술회관, 무안남도소리유포럼, 곡성레저문화센터, 강진아트홀 등에서 열린다.

남도 판소리 부흥을 위해 지난 2019년 시작된 대한민국 창극제는 올해 2화제를 맞았으며 이번 축제는 5개의 민간예술단체 공연, 1개의 국·공립 초청공연, 시상식, 학술대회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9월3일 나주문화예술회관 무대에는 소리극단 도채비가 올라 ‘춘향가’를 모티브로 풍자와 해악을 담은 창극 ‘암행어사’를 선보인다. 이어 파래소극악설내악단이 우리나라 전통 무속음악을 베이스로 퍼포먼스와 연극을 가미한 창작 국악공연 ‘당산 신나무의 노래’를 9월4일 남도소리유포럼에서 공연하며, 청강창극단은

9월10일 곡성레저문화센터 무대에 올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아가페적 사랑을 노래한 음악극 ‘꽃가마 타고’를 선보인다.

예술단 결이 이청준 소설을 모티브로 제작한 소리춤극 ‘서편제’ (9월11일·남도소리유포럼)와 판소리보존회 광주지회 ‘심창’을 기반으로 오페라형식을 가미해 만든 소리창극 ‘황후 심창’ (9월18일·강진아트홀)도 만날 수 있다.

10월16일 남도소리유포럼에서는 전남도립국악단의 창작공연이 펼쳐진다. 우수작품과 우수 연기자에 상을 수여하는 시상식(10월30일·남도소리유포럼)과 대한민국 창극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대회(12월1일)도 마련된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예방을 위해 이번 창극제는 전남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전남문화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과 일정은 재단 및 남도소리유포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전문재 기자 ej6621@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